

해서

역할 설명

미사 시작 전과 각 순서 사이에 안내 멘트를 하는 역할입니다. 신자들이 언제 일어서고 앉아야 하는지 안내하고, 미사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이에요.

준비사항

- 해설문 미리 출력하거나 핸드폰에 저장
- 미사 순서 전체 흐름 숙지 (어느 타이밍에 마이크 잡을지)
- 교사 또는 사제에게 특별 공지사항 있는지 미사 전에 확인
- 미사 최소 20분 전 도착
- 단정한 복장 착용

수행 방법

기본 원칙

- 목소리는 밝고 또렷하게, 안내방송 톤으로
- 너무 빠르지 않게, 신자들이 들을 수 있는 속도로
- 모든 멘트 사이사이 2~3초의 침묵을 두어 미사가 급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조절
- 항상 다음 순서를 미리 보고 있기 (타이밍 놓치지 않도록)
- 해설대로 이동 시 제대를 향해 경례

일어섬/앉음 안내

- 신자들이 언제 일어서고 앉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
- 손동작 또는 멘트로 정확히 신호 주기
- 안내 후 2~3초 기다렸다가 다음 멘트로 넘어가기

미사 시작 전:

"OO 성당 청소년 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.

잠시 후 미사가 시작되오니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"

입당 전 (일어섬 안내):

"지금부터 OO 주일 미사를 시작합니다.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."

독서 전환 시:

"이제 제1독서가 있겠습니다."

강론 후 앉음 안내:

"잠시 묵상하겠습니다. 앉으십시오."

자주 하는 실수

-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리는 것 → 크게 숨 한 번 쉬고 시작
- 순서를 놓쳐서 타이밍을 늦게 잡는 것 → 항상 다음 순서를 미리 보고 있기
- 멘트를 너무 빨리 읽는 것 → 천천히, 또렷하게
- 침묵 없이 멘트를 이어붙이는 것 → 각 멘트 사이 2~3초 여유
- 일어섬/앉음 안내를 빠뜨리는 것 → 신자들이 혼란스러워함
- 특별 공지사항을 빠뜨리는 것 → 미사 전 교사에게 반드시 확인

- 해설문을 미리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. 낱선 단어가 있으면 미리 확인!
- 미사 순서표를 손에 들고 있으면 타이밍 잡기가 훨씬 편해요
-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에요. 여유 있게 진행하세요